



광주·전남 농수산물식품 코로나에 수출 잘 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전세계적인 물류난 속에서도 지난해 광주·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8300억원(6억8100만달러)에 육박했다.

김과 전복, 배 등의 선전으로 광주·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전국 평균 성장세를 크게 웃돌았다.

23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6억8100만달러로, 전년(5억6200만달러)보다 21.1%(1억1900만달러) 증가했다.

광주·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전국(113억 5900만달러)의 6%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2020년 98억6900만달러에서 지난해 113억5900만달러로, 15.1%(14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지역 농수산물식품 수출 성장세가 전국 평균을 크게

aT 광주전남본부, 지난해 8300억원...전년비 21.1% 증가

김·전복·유자·배·조제분유 '효자'...미역·툫 수출 전년비 감소

게 웃돈 건 수산물의 약진이 한몫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액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0%는 수산 부문(3억2000달러)이 차지했다. 농산 식품이 2억8500만달러(41.8%)를 차지했고, 축산 4500만달러, 임산 3100만달러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광주·전남 수산 식품 매출은 전년(2억 8400만달러)보다 12.7%(3600만달러) 증가했다.

농산 부문 증가율은 26.4%(2억2600만달러→2억8500만달러)로 나타났고, 축산 61.4%(2800만달러→4500만달러), 임산 25.2%(2500만달러→

3100만달러) 등 모든 부문이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냈다.

광주·전남 먹거리 수출을 책임지는 10개 주요 품목을 살펴보니 김과 전복, 조제분유, 유자차, 배 등의 선전이 돋보였다.

전국 김 수출의 31%를 차지하는 광주·전남의 지난해 수출액은 2억1231만달러로, 전년(1억7086만달러)보다 24.3%(4145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전국 수출액 증가율 15.4%(6억42만달러→6억 9276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광주·전남 전복 수출액은 4384만달러로,

전국 수출액 5444만달러의 81%나 차지했다.

전복 수출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5.0%)을 웃도는 5.5%를 기록했다.

지역 조제분유 수출은 전년보다 무려 75.8% 급증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조제분유 수출액 3821만달러는 전국(1억450만달러)의 37% 비중을 차지했다.

고흥을 필두로 한 유자차 수출액은 1935만달러에서 2087만달러로, 7.9%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4.3%)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전국 배 수출의 18% 비중을 차지하는 광주·전남 배 수출액은 지난해 1295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97만달러)보다 29.9% 뛰 규모다.

김치 수출은 전년보다 5% 증가한 935만달러, 파프리카는 13% 늘어난 657만달러로 조사됐다. 단

전국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 8%에 불과했다.

미역 수출액은 1874만달러, 툫은 1449만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19.6%, 13.2% 급증했다. 전국 수출액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역은 53%, 툫은 91%에 달한다.

김춘진 aT 시장은 지난 22일 광주전남지역본부를 방문해 올해 주요업추 추진계획과 농수산물식품 수출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광주·전남은 배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로서 지난해 공사가 수매한 농산물이 도매시장 상장물량의 반 이상을 수행하는 등 수급조절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축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노란우산 가입지원금 받고 희망자산 마련하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창호)는 광주시 및 전남도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16일 이후 정부·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지난해 7월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소기

업·소상공인이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광주시는 최대 12만원(월 2만원×6개월), 전남도는 최대 24만원(월 4만원×6개월)의 장려금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과 합산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9988.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대표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

령 등 위험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 2007년 출범이래 재적 가입자가 156만명, 부금액은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라면 누구나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납부,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납부금지,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 등 혜택이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경영·고용위기 대응’ 참여 기업 모집

광주상의

광주상공회의소는 '2022년도 지역기업 경영·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상의가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저탄소·디지털 경제전환과 급변하는 경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전환, 전환 산업군 종사자의 노동전환 및 고용안정, ESG경영 도입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대응, 투자유치 및 자금관리,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 등을 통합지원한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기업 경영 및 고용현황을 진단, 그 결과에 맞춰 기업에 맞는 타 지원사업을 연계하거나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기업에 근무중인 퇴직예정자의 경우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재취업과 직무훈련 등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에도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광주상의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또는 최근 3년 이내 전년대비 매출이나 고용의 감소 이력이 있는 기업이거나 사업전환, 신규사업 추진,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기타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다.

올해 진단 50개사, 컨설팅 25개사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 전화(062-350-5891)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영·섬유역본부 나눔 바자회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세계 물의 날' (22일)을 기념해 23일 아름다운가게 광주운천점을 찾아 직원들이 내놓은 생활용품과 의류 등 350여 점을 기증하고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본부 제공>

광주은행, 헬스케어 기반 디지털 금융 협약

라이나생명보험과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35.05 (+25.05)
↑ 코스닥	930.57 (+5.90)
↑ 금리(국고채 3년)	2.426(+0.027)
↓ 환율(USD)	1213.80 (-4.30)

광주은행이 헬스케어(생명건강) 산업 기반 디지털 금융을 펼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은행은 최근 라이나생명보험과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종훈 광주은행 부행장과 이종석 라이나생명보험 전무 등이 참석했다.

두 기업은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 디지털 금융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은행이 쌓아온 고객 경험과 마에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플랫폼을 활용하고 라이나생명보험은 상품 경쟁력으로 힘을 보탠다.

이번 협약에 따라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의 마에데이터 활성화와 디지털 보험 연계 신사업 추진 등 협력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훈 부행장은 "이번 협업을 각 사가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정보기술 핀테크와 빅테크 공존과 경쟁 속에서 광주은행만의 특화된 마에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첫 노동이사 선임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첫 노동이사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나왔다.

진흥원은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첫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조동선(사진) 차석(컨텐츠융합팀)

을 노동이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노동이사 관련 정관 및 규정을 개정, 노동이사 선출 선거관리규칙 제정 등 제도적 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1월25일부터 노동이사 공모를 벌인 결과 선발된 2명의 후보자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지난 22일 진흥원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조동선 차석을 노동이사로 선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